

러시아발 에너지값 쇼크...주택용 난방·온수 '열요금' 40% 급등

지역난방공사, 올해만 세 차례 인상
LNG 수입 가격 1년 전보다 157% ↑

올 들어 러시아발(發)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난방·온수비와 관련된 열 사용요금(지역난방비)이 4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주택용 열 요금(난방·온수 사용량

에 부과하는 요금)은 1메가칼로리(Mcal)당 65.23원이었다.
이후 열요금은 4월 66.89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오르며, 1년 전과 비교해 총 37.8% 인상됐다.
요금을 조정하기 직전과 비교해 인상은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치솟았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다.
열요금은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에 연동되고,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 차이 등도 반영해 조정된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과 연료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수송량이 감소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인상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NG 수입 가격은 톤(t)당 1465.1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56.5%, 지난 8월 대비 22.2% 오른 수준이다.
LNG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전기·가스 요금은 고평가 상황에서 잇따라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전기요금을 지난 4월에 킬로와트시(kWh)당 6.9원, 7월에 5원을 각각 올렸다. 지난달에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kWh당 7.4원을 인상했고, 대용량 사업자 요금은 추가 인상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메가 줄(MJ)당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을 각각 올렸다.
문제는 에너지 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LNG 수요가 갈수록 늘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4분기 가스 시장 보고서'는 내년엔 중국과 인도의 가스 수요가 각각 5%, 2%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최이슬기자

삼성 '더프리스타일', 오프라 연말 선물 리스트 포함

삼성전자 휴대용 프로젝트 '더 프리스타일'



삼성전자 휴대용 프로젝트 '더 프리스타일' (OprahDaily.com)에서 발표하는 '오프라가 가장 좋아하는 리스트 2022(Oprah's Favorite Things 2022)'에 이름을 올렸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북미 시장 최고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이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하는 연말 선물 추천 리스트에 등재됐다.
오프라 데일리는 2000년부터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을 따서 발행된다.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화제가 된 각 분야의 제품 중 윈프리가 가장 좋아한다고 직접 뽑은 제품들을 발표한다.
이 리스트는 미국에서 연말연시 영향력 있는 추천 선물 리스트로 꼽힌다.
오프라 데일리는 삼성전자의 '더 프리스타일'이 "어떤 벽도 대형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는 제품"이라며 "당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밍 앱과 강력한 스피커로 영화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프리스타일 외에도 2016년 '더 셰리프', 2017년 '더 프레임', 2020년 '더 테라스' 등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들이 '오프라가 가장 좋아하는 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환기자

bhc치킨, '2023 뿌찌 다이어리' 선보



bhc치킨은 치킨 메뉴 주문 시 자체 제작한 '2023 뿌찌X브레드이발소 다이어리'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는 배달 고객에서 내방 고객까지 bhc 치킨 메뉴를 주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품목은 '뿌링클', '맛초킹' 등 대표 메뉴를 포함한 bhc치킨 전체 치킨 제품이다. 매장별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다이어리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인 '브레드 피트', '윌크 화이트', '초코'와 브레드 자사 캐릭터인 '뿌찌' 등 총 4종을 활용해 디자인됐다. 내지는 연간, 월간 등 기간별로 일정을 계획하는 페이지와 프리 페이지(줄, 모눈종이)로 구성했다.
다이어리 커버 안쪽에 캐릭터를 활용한 종이접기 키트(팝잇자)가 포함돼 재미를 더한다. 키트는 뿌찌 1종과 브레드이발소 캐릭터 3종 중 1종 등 총 2종이 제공되며 설명서에 따라 종이를 접어 완성하는 형태다.

이슬비기자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서 'GS건설 2년 연속 1위'

부동산R114, 한국리서치와 공동 조사

부동산R114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S건설 '자이'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해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 '래미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그 뒤를 이었다.
두산건설 '위브'는 종합 순위 9위로 2년 만에 상위 10위권에 재진입했고, 2019년 '포레나'를 문정환 한화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

는 브랜드를 묻는 최초 상기도 문항에서는 GS건설 '자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전체의 2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22.6%), 삼성물산 래미안(15.7%), 현대건설 힐스테이트(6.2%), 한화건설 포레나(3.5%) 순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설사를 묻는 질문에는 현대건설이 전체 응답률 중 33.4%를 차지하며 8년 연속 건설회사 상기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15.6%), 삼성물산(12.3%), GS건설(10.3%), 한화건설(3.9%)이 그 뒤를 이었다.
공인중개사가 뽑은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로는 래미안이 꼽혔다. 공인중개사(또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로 삼성물산 래미안(62.5%)이 1위로 선정됐다.
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2.1%), GS건설 자이(46.9%), 대우건설 푸르지오(33.3%), 포스코건설 더샵(21.9%) 순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지가 좋아서(55.6%)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한 경관과 쾌적성이 좋아서(37%) ▲내부 평면 설계가 우수해서(28.9%) ▲단지 내 편의시설이 편리해서(28.2%) ▲유명브랜드 아파트라서(20.4%) 순으로 조사됐다.

유우나기자

SK매직,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타사 제품도 가능

SK매직은 손쉽게 매트리스를 전문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일회성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신체와 직접 닿는 매트리스는 집먼지 진드기의 사체와 배설물, 수면 중 흘리는 땀과 분비물 등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돼 전문적인 관리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매트리스 클리닝은 침대 청소와 살균 등 전문적인 방문관리 서비스다. 매트리스를 별도 렌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다.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전문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 ▲매트리스 상태 점검 ▲침대 프레임 클리닝 ▲먼지와 진드기 제거 등 매트리스 클리닝 ▲피톤치드 분사 및 항균 ▲자외선(UV)살균 ▲진드기 차단 패치 부착 등을 약 30분간 진행한다.
특히 일반 청소기와 달리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물필터를 이용한 '하일라' 청소기를 사용해 청소 중 발생하는 공기 오염을 방지하고 흡입한 진드기와 먼지 내 세균과 각종 바이러스를 분해한다.

전문 기사가 방문 먼지·진드기 제거...살균까지



서비스 신청도 간편하다. 공식 온라인몰과 SK매직몰을 통해 서비스 요청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원하는 일정에 받을 수 있다.

SK매직은 매트리스와 클리닝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16일까지 영산 아이파크몰에서 운영한다.

뉴시스

홈플러스, '수능 응원' 먹거리·용품 선보여

홈플러스는 다가오는 수능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응원 먹거리·용품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는 초콜릿으로 신상품 허쉬 3종 ▲키세스 골드바 ▲골드 펜슬 ▲골드 트레블 토크를 각 6720원, 5760원, 1만 960원에 판매한다.
스누피 캐릭터 파우치와 아웃도어백을 함께 구성한 '마즈 스누피 기적 2종'도 각 7890원, 1만 3900원에 준비했다.
따뜻한 식사를 위한 락앤락&써모스 보온도시락·보온병 등 20여종은 30% 할인 판매한다. 휴대성이 뛰어난 겨울철 꾸준한 인기 아이템인 3M 핫팩 3종도 2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페레로 로쉐, 더홈 플라넬 담요 등 제과류·용품류에 해당하는 252종의 행사 상품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가전에서는 수능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로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자급제 폰 '삼성 갤럭시 Z 폴드4 또는 폴드4와 '버즈2 프로'를 동시 구매하면 취급 점포에 한해 일정 금액을 추후 삼성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소유 '로지텍 슬립멀티키보드 K580'을 전점에서 1만원 할인 판매하고 샤오미 입점 33개점에서는 '미밴드7', '미워치2 라이트'를 1만원 할인가에 제공한다.

서선욱기자

CU, 벌교 꼬막 간편식 3종 출시

편의점 CU는 11월 꼬막 제철을 맞아 남도의 대표 지역 특산물인 벌교 꼬막을 넣어 만든 간편식 3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꼬막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은 낮아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비타민과 타우린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 천연 자양강장제의 역할을 하는 건강 식품이다.
임금늪 수라상에 오르는 8진미로 손꼽히는 벌교 꼬막은 소של 태백산맥에서 갭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벌교 꼬막을 한 점씩 소복하게 밥상에 올려놓고 싶다고 묘사할 정도로 우수한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CU는 2018년부터 매년 겨울 벌교 꼬막을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여 왔다. 꼬막 정식 도시락은 첫 출시 직후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매출 2위를 차지하며 매년 겨울 리뉴얼 출시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뉴시스